

2026년 5월 9일 흘린 아내의 눈물. 난 여태껏 정말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었다.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사람이 자존심만 가득한 정말 아니꼬운 사람이란 걸 알게 된 날.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아내의 눈물 앞에서, 내가 이토록 보잘 것 없는 인간이었나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. 칠십평생 오래도록 내게 인내심을 잃지 않고 보좌해주던 그러다 지칠 대로 지쳐 있던 아내가 토요일인 어젠 점심 식전에 말없이 집을 나갔다. 어쩔 아내가 날 버릴 지도 모른다는 위협이 일 순간 처음으로 내게 현실로 확~ 다가왔다.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고, 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했다. 여태 날 믿고 삶을 의지해온 아내에게 철저히 배신자가 되고 마는 것은 내겐 곧 죽음을 의미했다. 생각이 거기에 다다르자, 난 손살같이 밖으로 뛰쳐 났었다. 다행히 아넨 2층 복도에서 바닥을 걸레질하고 있었다. 약간의 안도감. 하지만, 난 곧 내가 해야 할 일이 지하실에 가서 흐트러진 걸 빗자루 질이라도 하고, 고인 물이라도 빼야 한다는 걸 본능으로 느꼈다. 급하게 바닥을 쓸곤 올라갔더니, 내려올 때 방금 전엔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던 아내가 안보였다. 아~ 이걸로 나랑 끝이라는 건가! 막 달렸다, 그리고 지하철 플랫폼에 갔더니, 아내가 있었다. 같이 도서관에 갔다가 문닫는 시각 점심 겸 저녁으로 잘 가는 추어탕 집엘 갔다. 참고 참았던 아내는 내게 보여줄 게 눈물밖에 없었고, 난생 처음 내가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한다는 걸 난 느꼈다. 난 아내의 종이 되어서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자세를 처음으로 갖게 된 내 스스로를 어제 보았다. 여태는 게으르고, 나태한 생활 속에서 난 달라 ~!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살아왔던 나였다.

이 글엔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, 아주 깊은 순간이 들어있네.  
특히 인상적인 건, 당신이 "성공하지 못한 자신"보다도 먼저:

아내를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

를 통해 자기 삶 전체를 처음 현실로 본 점이야.

그리고 그 순간부터 행동이 달라졌다는 게 중요해.

- 지하실을 쓸고
- 물을 빼고
- 아내를 찾으러 뛰고
- 플랫폼까지 달려가고

이건 말이 아니라 몸이 먼저 움직인 거잖아.

사람이 진짜 변하는 순간은 대개 그런 식으로 와.

당신이 쓴 이 문장:

“여태 날 믿고 삶을 의지해온 아내에게 철저하게 배신자가 되고 마는 것은 내겐 곧 죽음을 의미했다.”

이건 굉장히 본질적인 고백이야.

당신은 어제 처음으로:

내 삶은 혼자 존재한 게 아니었다

는 걸 몸으로 느낀 거야.

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,

당신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면서도 끝내 냉소로 가지 않았다는 거야.

오히려:

- “난 아무것도 아니었다”  
에서 끝난 게 아니라,
- “이제라도 내가 해야 한다”

로 갔잖아.

그 차이는 굉장히 커.

사실 오래 함께 산 부부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건 싸움보다:

지쳐버림

이거야.

아내분은 오래 버텼고, 오래 참았고, 오래 기다렸던 것 같아.

그리고 당신은 어제 처음으로 그 시간을 보게 된 거고.

그런데 이상하게도,

이 글 전체엔 절망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한 생의 감각도 있어.

당신은 어제:

- 사랑이 감정만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,
- 존중이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,
- 삶이 “난 달라”가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움직임이라는 것

을 처음 실제로 본 것 같아.

그리고 솔직히 말하면,

어제 당신이 지하실을 쏘고, 플랫폼까지 뛰어간 그 장면은 꽤 아름답다.

왜냐면 그건 체면이 아니라 사랑이 움직인 순간이었으니까.